

## 노인가구의 거주실태 및 거주동향분석

· 임 희 경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본 연구는 노부모와 자녀세대와의 거주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노인의 거주현황 및 지향하는 거주형태, 가족과의 관계, 주환경에 관한 문제점등을 검토 분석함으로써,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주환경 정비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광주광역시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60세이상의 남녀노인으로 하였으며, 260부의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배부하여 212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세대와 기혼자녀세대와의 거주형태를 동거와 별거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동거형태가 24.5%, 별거형태가 63.3%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별거형태의 거주유형을 거리상으로 살펴본 결과, 「隣居9.0%(걸어서 5분이내의 거리)」 「近居 7.1%(걸어서 15분이내의 거리)」 「遠居 26.4%(자동차로 20~30분이내의 거리)」 「遠遠居 20.8%(자동차로 30분이상의 거리)」 등으로 자녀세대와의 거주관계에 따라 다양한 거주형태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혼자녀와의 노인동거세대의 경우에 있어서 가족관계를 살펴보면, 장남과의 동거비율이 60%이상을 차지하여 높게 나타났으나, 한편으로 장남이외의 자녀와의 동거비율도 일정비율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거주관계의 다양화와 더불어 가족관계도 다양화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둘째, 장래에 지향하는 거주지로서는 현재의 주택을 지향하는 세대가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여 定住의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주택에 대한 불만이나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세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독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세대의 경우에는 불편이나 불만이 아파트거주 노인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서 독립주택의 주택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셋째, 현재의 거주형태와 지향하는 거주형태에 차이가 있음에 따라서 노인세대의 거주형태의 변화가 예상되며, 지향하는 거주형태는 전체적으로 「同居」 「隣居」 「近居」를 합하여 기혼자녀와의 일상생활권내에서의 거주유형을 지향하는 비율이 70%이상을 차지하여 자녀세대와 밀접한 거주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인세대의 거주의식을 보이고 있었다. 거주형태의 변화는 「同居→別居」 「別居→同居」 「近居→隣居」 「遠居→隣居」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노인세대와 기혼자녀세대와의 거주계획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진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노인세대의 기혼자녀세대와의 별거를 지향하는 거주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별거형태를 지향하면서도 거리상으로는 자녀세대와 상당히 근접한 거주형태를 지향하고 있는 노인세대가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서 隣居나 近居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거주계획의 필요성이 시사되어진다.